

## 새해를 여는 미술상 주인공 7

우현학술상, 김복진미술상, 백남준예술상, 올해의 작가상 외

왼쪽부터 · 수상자  
최열(우현학술상) /  
정현(김복진미술상) /  
조안 조나스(백남준예술상) /  
문지하(천경자예술상) /  
양정욱(올해의 작가상) /  
이진원(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상) /  
탁영준(송은미술대상)



연말연시, 국내의 주요 미술상 수상자를 한자리에 모았다. 유서 깊은 학술상부터 야심 차게 등장한 신규 미술상까지, 한국 아트씬이 주목한 수상자 7인이 무지갯빛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먼저 우현학술상, 김복진미술상, 백남준예술상은 원로 미술인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우현학술상은 한국 미술사, 미학, 박물관학 등 미술이론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연구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제37회 수상자 최열(1956년생)은 1993년 한국근대미술사학회를 창립한 주역이다. 2021년 발간한 『추사 김정희 평전』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서화가 김정희의 탄생 설화부터 유배 시절, 사제 관계 등 개인 생애는 물론, '추사체' 발명과 예술론, 대표작 〈세한도〉 평론 등 미술사적 담론까지 총망라했다.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인명으로서의 한국 미술사'다.

2023년 발족한 김복진미술상은 한국 근대조각의 효시 김복진을 기린다. 근현대조각 발전에 이바지한 동시대미술가를 조명한다. 제2회 수상자는 조각가 정현(1956년생)이다. 심사위원단은 "인본을 중시하는 사상과 태도"를 선정 이유로 밝혔다. 정현은 홍익대와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조소과를 졸업했다. 침목, 고철, 아스팔트 등 산업 폐기물로 인간 군상을 조각해 왔다. 2024년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출품작 〈목전주〉(2006)는 17m가량의 나무 기둥 여섯 개를 창원복합문화센터 동남운동장에 세워 자연의 장엄한 힘을 보여줬다. 상금은 2천만 원. 오는 5월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제8회 백남준예술상은 1936년생 미국 작가 조안 조나스가 거머쥐었다. 2009년 출범한 이 상은 지난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특히 심사위원단 구성이 주목할 만하다. 추천위원과 심사위원으로 나눠 운영되던 구조에 운영위원까지 추가해 심사의 균형감과 긴장도를 높였다. 또 기존 심사 항목이었던 창의성, 실험성, 급진성에 '세계 평화 기여도'와 '미술사적 업적'을 더했다. 조나스는 1960년대 후반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포터팩'과 TV 모니터, 거울 등으로 사회의 고정적인 성 역할을 탐구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간 중심 세계관을 넘어 에코페미니즘을 실천하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상금은 5천만 원. 올해 11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수상 기념전을 개최한다.

한편, 천경자 화백의 차녀이자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인 수미타 김은 천경자 탄생 100주년을 맞아 천경자재단을 창립하고, 예술상을 제정했다. 제1회 천경자예술상은 중견 작가 문지하(1973년생)가 받았다. 그는 고려대 미술과 학사, 이화여대 서양화전공 석사를

